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허 윤*

차 례

1. 전후의 불안과 히스테리의 확산
2. 전후 가족건설의 불가능성과 무성적 섹슈얼리티
3. 이성애정상성의 내파와 여성의 가족 세우기
4. 잉여 가족과 순수한 소비로서의 미망인 섹슈얼리티

국문초록

전후 한국사회에서 전쟁미망인들은 사회가 말하는 정상가족을 가질 수 없었다. 사회는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감시하며 미망인은 아들을 키울 때에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의 요구와 달리, 전쟁미망인의 가족은 사회 재생산의 토대를 위협하는 양상으로 그려진다. 『유혹의 강』이나 『태양의 계곡』은 타락한 여성과 정숙한 여성을 대비시킨다. 소설의 표면 서사는 타락한 여성을 처벌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성적 관계만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성적 방종은 자기 처벌의 일환이 되고, 낭만적 연애는 무성적 관계 속에서만 유지된다. 여기서 무성애적 섹슈얼리티는 세대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문제적이다. 박경리의 초기 소설 『표류도』나 『시장과 전장』에서는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가 이성애정상성을 내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의 경계를 허물고 가족의 안과 밖을 교란한다. 미망인이 대물림되는 서사 속에서 딸들은 어머니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끼는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것이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딸들의 성공적 연애를 방해하고 딸들을 동성애 우울증자로 만든다.

이처럼 50년대 전후소설은 젠더 정체성을 위협하는 양가적인 섹슈얼리티가 된다. 근대사회의 형성토대를 내파하는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사회의 재생산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순수한 소비로 기능한다. 이는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 편입시키려는 사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제와 통제는 오히려 이들을 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세대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전쟁미망인, 히스테리, 1950년대 후반, 재생산, 죄의식, 이성애정상성, 우울증, 섹슈얼리티, 박경리

1. 전후의 불안과 히스테리의 확산

1950년대 한국사회는 민족국가의 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를 재편하였다. 이 재편의 움직임은 소련, 중국을 위시한 공산주의와 미국으로 표상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제시된다. 전쟁의 대립적 패러다임이 부유층과 빈곤층, 도시와 농촌의 구도에서 더 나아가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노출시킨 것이다.[1]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단일화된다. 집단적 정서로서의 반공이데올로기가 거시담론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영역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국민/비국민, 남성/여성의 젠더화, 좋은 여자/나쁜 여자와 같은 정체성의 차원까지 포함한다.[2]

---

1) 진순애, 「전쟁과 인문학의 상관성」, 『우리말글』 30, 2004, 324~361쪽.

한국전쟁 직후 반공이데올로기는 곧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등가를 이룬다. 하지만 반공=미국의 등식은 1955년을 기점으로 변모한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만이 아니라, 성공한 물질문명을 이룩한 노동과 생산 중심의 국가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노동 중심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건실한 생산을 이루는 '젊은 아메리카'라는 데서 출발한다.[3] 5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건설'과 '노동'의 기치였기 때문이다.

미국식 근대화는 잉여의 소비와 건강한 생산이라는 상이한 가치를 모두 표상했다. 정치, 경제, 섹슈얼리티 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 미국식 풍요로움은 비난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미국식 풍요로움의 부정적 축, 즉 소비, 사랑, 연애 등은 모두 여성에게 할당된 기표라는 점이다. 이들은 건강한 사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이는 전후 사회의 불안이 여성에게 투사되기 때문이다. 냉전이데올로기 속에서 구축된 사회의 감시체제는 국민이 건강한 가족과 국가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특히 5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자유로운 선택이 전제되는 한, 모든 결과물은 개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주체는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상시적 불안에 시달린다.[4] 남성-사회-국가 주체는 '나'보다 더 나쁜 타자가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는다. 자유부인, 아프레 걸[5], 유엔마담 등 타자의 기표가 수행하는 역

2)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근대문학연구』 23집, 2008, 203~234쪽.

3)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와 1950년대 한국 문학의 자기 표상」, 연세대 박사논문, 2007.

4) Renata Salecle, *On anxiety*, Routledge, 2004.

5) 서구에서 아프레 걸이 구습의 타파와 새로운 세계관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였다면, 한국사회에서 아프레 걸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여학생, 직업 전선에 뛰어든 미망인,

할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식 풍요로움의 한 축이 잉여의 소비로 비판받는다면, 다른 축은 생산성을 지닌 모델로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 건강한 생산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모델로 삼는다. 그리고 이 가족은 공적 영역에서 임금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사적 영역에서 재생산을 담당하는 어머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아들로 구성된다.[6] 이러한 성별 분업구도는 전후 미국사회의 구조기능론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7]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근대 핵가족 속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머니' 역할뿐인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머니 외의 다른 역할은 비정상이 되고,[8] 이 비정상성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배출구가 된다. 그리고 사회는 이들을 히스테리에 걸린 여자들이라고 명명한다. 중년여성의 성적 쾌락을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 등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퇴폐적이며 서구지향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94쪽.

6) 공사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던 근대 이전 사회에서 어머니노릇은 여성의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다. 근대 이전의 가족은 사회의 주요 생산 단위로 기능했으며 집과 작업장은 분리되지 않았다. 이때 여성은 생산, 재생산의 책임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공사의 분리 이후, 가족은 "순수하게 관계적이고 개인적인 집단, 사회의 사적 영역이 되었다." 여성은 가사노동과 더불어 "남편을 양육하고 지원할 것"이 기대되었다. 이는 여성의 어머니노릇과 모성성, 이성애적 결혼으로 축소된 가족형태를 생산하고 남성 지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면서, 가정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를 바탕으로 성장한 자본주의를 통해 강화되었다. 낸시 초도로우, 『모성의 재생산』, 김민예숙 외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19~30쪽.

7) 탈콧 파슨스, 『현대사회들의 체계』, 윤원근 옮김, 새물결, 1999.

8) 이때 전후 한국사회는 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체는 완전하다'라는 판타지를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결핍이 없는 사회는 건강한 가족과 윤리적 엄격성을 바탕으로 순수한 혈통과 국가를 만들어낸다. 혼혈이나 재혼은 혈통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비판받았으며, 여성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의미 있을 수 있었다.

"'히스테리처럼 동요'하는 병적인 징후"로 읽는 것이다.[9] 이러한 명명에는 여성 히스테리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히스테리아는 성적 과잉, 소비의 과잉, 육체의 과잉을 표상하며 사회의 병리적 주체로서 비판받는다. 하지만 히스테리아는 자신을 비판하며 길들이려고 하는 사회 담론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은 담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질병을 연기한다. 그 연기를 통해서 사회가 자신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히스테리아의 연기가 반복되면서 그 비판과 조롱의 화살은 사회의 담론을 향한다. 그녀의 과잉된 연기는 오히려 자신들을 '질병'이라고 명명한 상징질서의 허점을 노출시키기 때문이다.[10] 이로 인해 히스테리아는 상징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환자로서 의미를 갖는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의 호명에 순응한다. 하지만 히스테리아는 그 호명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질병'을 통해 저항한다. 1950년대 한국사회의 여성 히스테리아 역시 사회의 호명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들의 질병은 사회의 악으로 비판받지만 동시에 사회 질서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본고는 1950년대 전쟁미망인을 중심으로 근대 사회의 토대인 가족질

9) 임은희,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여원>에 나타난 간통의 담론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2007.

10) 히스테리를 처음 '발명한' 샤르코는 히스테리가 여성의 성적 불만에서 나온 병이라고 보았다. 일정 나이가 지났음에도 결혼을 하지 못해, 성적 불만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히스테리 환자가 된다는 것이다. 샤르코는 자신의 병원에서 히스테리 환자들이 일으키는 활 모양의 발작을 자세하게 기록, 보고한다. 성행위의 쾌감을 연상시키는 이 동작은 샤르코의 병원을 찾아온 많은 의사들을 놀라게 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다른 병원이나 진료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살페트리에르의 여성환자들은 의사인 샤르코의 바람에 따라 자신의 질병을 연기한 것이다. 이러한 연기는 히스테리를 둘러싼 담론의 허구성을 노출하며 담론에 따라 연출되는 여성 질병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상징질서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만, 그 요구를 너무 철저하게 수행한 나머지 그 요구의 허구성을 노출시키는 저항성으로 인해, 히스테리는 '반대의지의 병'이라 불렸다.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히스테리』, 엄양선 외 옮김, 여이연, 2003.

서를 재검토하려고 한다. 전후 미망인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대의명제를 내파하는 여성주체의 양상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는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만 인정될 수 있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근대적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고유한 미풍양속"을 지키는 어머니가 되라는 것이다.[11] 하지만 이러한 담론의 지배 아래 구성된 1950년대 소설 속 전쟁미망인은 오히려 무성애적, 비이성애적 가족을 구성한다. 생산과 건설이 아닌 소비와 내파 양상을 히스테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전후 가족건설의 불가능성과 무성적 섹슈얼리티

전후 한국사회에서 '정상적' 여성은 가정의 관리자로서 어머니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가족의 운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미망인은 가족의 운영자에 머물 수 없었다. 이들은 가족의 운영자인 동시에 생계담당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직후 50만 명에 육박한 전쟁미망인은 '아직 죽지 않은 자'로 명명되었다.[12] 이들은 행상·노점상·식모·성매매 등을 통해 가계를 책임져야 했다.[13] 미망인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날수록 현모양처 담론은 거세진다. 모성이 훼손될수록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이

11)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 론의 특징」,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19, 2007.

12)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13)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호, 2000. 이임하는 전쟁미망인들이 생계의 문제와 성적 불만족을 강하게 느꼈으며 이것이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다. 여성가장의 억척스러움과 경제력, 성적 자율권 등은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명제 안으로 포섭되어야 했다. 자유부인은 남편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전쟁미망인들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긴 여성은 '사회 악의 온상'으로 비판받았다.[14] 이와 반대편에 놓이는 것이 김원일, 윤흥길, 전상국 등 '분단 2세대'[15] 작가들이 그려내는 모성신화이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전쟁미망인의 소설적 재현에 있어 큰 축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쟁 직후 소설의 경우, 보다 직접적으로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를 교화하고 통제하려 시도한다.

2.1. 미망인 섹슈얼리티의 통제와 재생산 없는 소비로서의 연애

"이상적인 가정"의 "참다운 가정주부"가 되기 위해, 여성들은 다시 한 번 성모가 되어야 했다. 성모가 아닌 여성들은 물질주의적인 대중문화의 통속성을 의미하게 되었으며,[16] 잉여로 여겨졌다. 정비석의 『유혹의 강』(1958)[17]은 이러한 통속성과 잉여를 소설의 전면에 배치한다. 『자유부인』

14) 2차 세계대전은 여성들이 임금 노동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들 남성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여성들은 다시금 본래의 자리,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받았다. 공장, 회사 등 사회에 남아 있는 여성들은 용기, 힘, 결단력 등 남성적 가치를 획득한 '괴물'이거나 과장된 여성성을 드러내는 '창녀bitch'로만 존재했다. 이 둘은 모두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성의 축을 할당받는다. 남성에게는 '건강한 가치'들이 여성으로 옮겨가면 '괴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의적 해석은 공적 영역에 남아 있는 여성들이 남성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Judith Modell and John Hinshaw, "Male work and mill work", *Gender and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5) 김원일, 윤흥길, 전상국 등은 유년 시절에 한국전쟁과 분단을 경험한다. 이들은 어린 아이의 눈으로 관찰한 전쟁에 대해 기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전쟁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분단문제에 대해 꾸준한 작품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 단계」, 『분단문학비평』, 청하, 1997, 294~295쪽 참조.

16)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35집, 2008.

과 마찬가지로 당대 사회의 부정부패와 타락상을 교화적 차원에서 보여주려는 것이다. 작가는 다방 삼봉각에서 “정치적인 모략중상과 경제적인 권모술수를 양성”하는 남성인물들을 비판하고, 오영환이나 윤만호를 통해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불감증을 고발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이다. 전쟁미망인은 사회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재가 된다. 텍스트 곳곳에 직접 개입하며 여성의 경제력과 성적 ‘방종’ 사이의 연결성에 주목하는 작가의 목소리는 전쟁미망인의 타락을 처벌한다. ‘팔령회’의 전쟁미망인들은 요리집에 다니며 술을 마시고 음담패설을 일삼는다. 이들 팜므파탈형 여성인물은 생계를 위해 다방이나 백화점, PX 등에서 일한다. 퇴폐적 근대 소비문화가 출몰하는 공간이다. 다방 마담인 강귀순은 차와 더불어 애교를 판매하고, PX에 다니는 장길녀는 미군과 연애를 한다. 이들은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다. 결혼을 통해 팔령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을 향해 ‘화냥년’이라는 비난을 퍼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작가는 결혼해서 팔령회를 떠난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이는 전쟁미망인의 성적 자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팔령회 속 미망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팔령회 여성들은 성적 방종과 몰지각함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정숙한 미망인 최선애와 대조를 이루면서 작가의 의도를 분명히 한다.

소설은 강귀순이 임신 중절 수술이 잘못되어 죽는다는 결말을 통해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을 응징한다. 주인공 최선애가 연애의 유혹을 떨치고 정숙한 어머니가 되는 것도 소설의 교화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이 경제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부장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18] 하지만 소설의

17) 정비석, 『유혹의 강』 上, 下, 신흥출판사, 1958.

이면은 가족의 재건을 통한 사회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유혹의 강』은 전쟁미망인이 가진 성적 욕망과 연애에 대한 환상을 직시한다. '가장 정숙한' 최선애를 통해, 미망인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공론장으로 표면화시킨 것이다.[19] 최선애의 반대 축에는 안타고니스트인 강귀순이 있다. 데카당스적 쾌락을 체험하는 강귀순은 근대 연애결혼 제도에 균열을 내며 비웃는다.[20] 연애는 "기브앤테이크"라며 오영환과의 사이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유희적 주체'[21]로서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유희는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수한 소비의 구조로 되어 있다. 상징질서 속에서 연애는 가족의 탄생과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들의 연애는 가족의 외부이자 재생산의 불가능성만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이는 1950년대 전후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연애상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50년대 후반 소설 속에서 미망인들의 연애는 민족국가의 바깥을 겨냥한다. 30년대 소설 속 연애가 사랑의 낭만화를 통해 건설되는 근대적 가정의 이상을 보여주었다면[22], 50년대 후반 제2부인은 생산이 불가능한

---

18) 임은희, 위의 글.

19) 남편이 납북되어 전쟁미망인이 된 최선애는 시댁의 도움으로 생활한다. 팔령회의 다른 미망인들에 비해 안정적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집 '안'에만 머무르는 존재인 셈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애가 정숙한 미망인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한 번도 사회의 공적 영역에 진출해본 적이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해야 하는 팔령회의 다른 여인들과 차이를 보인다. 소설 속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미망인 중 하나인 김선옥 역시 교사라는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력의 문제가 전쟁미망인의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 1950년대 다방은 도시 곳곳에 만들어졌으며, 당대 신문소설에서는 음성적 성매매 여성으로 다방 마담이나 점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를 파는 데 있어 당당하며 남성지배적 사회 질서를 뒤엎는다.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걸」,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

21) 서지영, 「카페, 근대 유흥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14, 2005.

철저한 소비로만 이어진다. 이 관계 속에서는 세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낭만적 연애가 비정상적인 형태로만 유지되는 것이다. 『유혹의 강』에서 낭만적 연애에 성공하는 것은 홍순주와 송영국, 오영환과 이경혜이다. 송영국은 늙은 부인을 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홍순주와 감정적 교류만을 나눈다. 이미 나이 든 할아버지인 송영국과 며느리뻘인 홍순주 사이의 연애는 무성적인 것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진다. 성적 욕망이 아니라 정신적 교류가 긍정적 가치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무성적 관계는 오영환과 이경혜에서도 실현된다.

오영환은 50년대 후반 사회의 과잉과 타락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여러 명의 여자들과 동시에 연애를 하며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일삼는다. 협잡과 부정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은 물론이고, 강귀순의 아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족 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의 도덕을 조롱하는 반사회적 인물인 것이다. 이런 오영환이 자신의 과거 삶을 반성하고 이경혜와 정원이 있는 집에 정착하는 결말은 작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성관계에 탐닉하며 섹슈얼리티를 추종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부 형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타락자에서 시민으로 복권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모는 오영환이 가지고 있던 위반적 속성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이다.

오영환은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모두 무시한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오직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재생산 없는, '목적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오영환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타락과 위반의 경계에 놓인다. 오영환이 보여주는 쾌락에 대한 추구는 사회의 정상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위반의 함의를 가질 수 있는

22) 30년대 여성작가들은 지식인 남녀의 낭만적 사랑에 대해 다루었다. 조혼한 구식 아내 대신 신여성과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여성은 핵가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을 키우며 어머니로 자리매김한다.

것이다. 작가는 이를 봉합하기 위해 오영환이 한 여자에게 정착하는 것처럼 그려놓는다. 오영환과 이경혜의 가족이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오영환의 연애는 재생산 영역 바깥으로 벗어남으로써 사회에 대한 진정한 '위반'이 된다. 일탈과 쾌락을 반복하면서 건강한 사회의 건설을 방해하는 인물에서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변모하는 오영환은 재생산 없는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사회의 생산구조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전쟁미망인을 다룬 소설에서 연애의 '성공'은 무성적asexual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재생산이 불가능할 때만, 연애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재건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소설에서 유일하게 정식 결혼에 안착한 장길녀 역시 민족국가의 건설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장길녀는 미군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고 결혼한다. 워브라이드가 된 장길녀는 개인적 안위를 위해 국가적 의무를 저버린다. 다시 한 번, 행복한 연애는 국가질서 바깥에서만 이루어진다. 새롭게 건설되는 가족에는 성관계가 부재하며 세대의 재생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이 없는 소비로서의 연애만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유혹의 강』이 보여주는 1950년대 사회의 징후이다.

2.2. 자기학대적 미망인과 원죄의식의 해소로서의 결혼

『유혹의 강』이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의 불가능성과 만나는 지점이라면, 『태양의 계곡』(1959)[23]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자기학대적 성향을 보여준다. 소설은 여동생인 정아가 오빠의 미망인인 지희 언니로부터 오빠의 연애와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23) 손소희, 『태양의 계곡-손소희 문학전집4』, 나남, 1990.

구성되어 있다. 지희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기억이 현재와 합치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이들은 전쟁의 유예상태이자 남성주체의 죽음을 살아간다.

소설은 『유혹의 강』의 강귀순과 최선애처럼, 아프레 걸인 정아와 정숙한 미망인인 지희를 대비시킨다. 하지만 이들은 죽은 오빠(남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심리상태를 갖는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두 여성을 자기학대적 욕망으로 끌고 간다.[24] 소설의 화자인 정아는 술에 취해 정조를 잃은 후, 아프레 걸에서 더 나아가 노방의 여자가 된다. 그녀가 아프레 걸이 된 것은 향락에 대한 탐닉이라기보다 정조를 잃은 자신에 대한 징벌행위에 가깝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나 조롱하듯 여러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창녀'화 함으로써 남자들이 유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자기학대적 행동의 근원에는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오빠의 죽음이 있다.

> 동란은 오빠의 죽음을 가져왔고 나에게 이브로서의 형벌을 지게끔 하였다. 이브의 형벌이란 아마도 나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리라. (222쪽)

1953년 서울 환도 직전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설의 도입부는, 이 두 여성이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오빠와 올케 지희의 만남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착하고 미망인인 지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은 "사람 같은 자식은 죽었고 사람 같지 않은 딸자식이 살아남"(253쪽)았다는 죄책감의 일환이다. 정아를 지배하는 것은

---

24) "언니, 나는 가끔 죽어버렸으면 싶은 때가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나처럼 나는 분주히 사과를 씹어 삼키고 나서 이렇게 내던지듯 지껄이고 말았다. 언니는 조용히 나를 바라다 보더니
"나두 그렇다우."
하고는 한 손으로 묵은 잔디를 모즈리고 있었다. (85쪽)

죄책감과 그로 인한 현실의 소비이고, 이는 준호의 미망인인 지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미망인인 지희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행복을 유예한다. 지희가 자신에게 열렬한 구애의 편지를 보낸 석은이나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러 남성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는 "항상 음산한 햇볕이 마련되어 있다"(257쪽)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준호가 지희에 대한 사랑으로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공산당에 잡혀 고문 끝에 병을 얻었다는 것이다. 지희는 준호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간다. 그녀도 정아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시간을 의지 없이 소비할 뿐이다.

> "무의지란 정아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휘예요. 나같이 한 없는 시간 속에 스스로를 의탁하고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휘예요. 다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면 언젠가는 운명의 의지하는 방향으로 끝내 불리워 가든가 도착이 되든가 하겠지요." (179쪽)
>
> 더욱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물체로 인연하여 나의 정신이 헐벗기우고 고뇌에 허덕이기를 거부할 거야요. 그러므로 저는 유쾌하기 위하여, 청에 의하여, 술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하고 밤을 같이 지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다보니 제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같이 생각되었어요. 그렇게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저는 저의 시간에 공백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방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행길로 행길에서 찻집으로 마구 돌아다녔어요. 술을 먹지 않아도 취한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어요. (59~60쪽)

정아는 시간의 공백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상태, 박진길, 한철휘, 석은, 강중령 등을 소비한다. 이러한 소비는 육체의 낭비라는 점에서 『유혹의 강』에 나타난 팔령회 여인들과 유사하다. 남편이 있는 안정된 가정이라는 현실의 행복을 획득하지 못한 여성들은 술과 음식, 화장품 등의 상품

을 소비한다. 강귀순이 자신의 육체를 낭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최선애와 지희는 전쟁으로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 현재를 소비한다.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기다리며 이 둘은 전쟁으로 죽은 준호를 애도하기 위해 현재를 소비한다. 이는 지희와 정아의 결혼이 연애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정아와 지희는 '운명의 의지'에 의해 결혼을 선택한다. 지희는 "청승스럽기만 한 것 같은 내 자신을 아무 곳에고 던져버려야 하겠다고 생각"(257쪽)하며 동료 교사와 결혼을 결정한다. 정아 역시 "임신과 낙태수술까지를 경험한 나 자신을 어디라도 내던지는 것이 마땅하다"(258)고 생각한다. 이 둘의 결혼은 이들의 원죄의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성의 타락과 방종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방해한다. 정아와 석은의 결합은 정아의 자기학대적 방종과 석은의 연인으로 인해 불가능해진다. 석은에게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노방의 인연'을 맺은 미망인과 딸이 있다. 석은 역시 친구들의 죽음을 딛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있기에, 자기방기적 관계맺기를 고수한 까닭이다. 전쟁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에 장애물로 작동한다. 정아가 석은 대신 결혼상대로 택한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남자인 동시에 군인이라는 점은 전쟁과 결혼이 맺는 관계를 보여준다.

소설에서 정아와 강중령의 결혼은 살아남은 자와 살려준 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강인식과의 결혼이 원죄의식의 해소로 이어져, 정아의 현실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의 원인인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엘리트 군인과 결혼함으로써 정아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보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레 걸로서 방황하고 반항을 일삼던 정아가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결말은 그가 전쟁의 승리자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는 지희와의 대조를 통해 확실해진다.

지희의 결혼상대자는 정아의 남편과 같은 군인이 아니라 전쟁의 생존

자일 뿐인 동료교사이다. 결혼과 곧 이은 죽음은 지희의 원죄가 완전히 탕감될 수 없음을 상징한다. 결국 지희에게 남은 것은 그 부채의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 그러나 이제 나의 눈에는 태양광선이란 한 오라기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다만 신의 선의를 불신하려는 내 안의 무수한 이교도들의 기치뿐이예요. 그 수많은 이교도의 기치 속에서 나는 눈을 말끔히 뜨고 앉아있기로 했어요.(284쪽)

지희는 재혼한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만든 운명을 견뎌내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이 생존에의 의지는 지희의 삶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알려준다. 시간에 스스로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능동적으로 지켜보려는 자세로의 변모는 『태양의 계곡』에서 보여주는 전쟁 극복의 방식이다. 원죄의식을 가진 여성이 군인과의 결혼을 통해 죄의식을 생활의지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정숙한 미망인 역할에 충실한 최선애나 지희와 같은 인물은 지나친 정숙이 불감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생산이 불가능한 육체가 된다. 미망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는 전쟁미망인을 재생산이 불가능한, 반-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미망인들의 성적 타락과 낭비는 타락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 제도의 틀 안에 있다. 하지만 무성적 섹슈얼리티는 재생산을 통해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섹슈얼리티의 과잉이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무성적 섹슈얼리티는 세대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병리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3. 이성애정상성의 내파와 여성의 가족 세우기

핵가족과 이에 바탕을 둔 성별분업은 근대사회 구조 전반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가족은 남성과 여성, 아이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성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근대가족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6.25 직후 한국사회는 파괴된 가족과 직면했고, 이를 여성이 봉합해야 했다. 여성이 가장이 되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50년대 후반에 발표된 많은 수의 소설이 여성가장에 주목하였고, 여성들이 가장이 되는 서사를 재현하였다.[25] 특히 박경리는 초기 소설을 통해 여성중심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경리의 전쟁미망인과 그녀들이 만들어내는 가족은 봉합보다는 내파에 가깝다. 이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바탕을 두고 있는 이성애정상성에 대한 도전을 통해 확인된다.

3.1. 거래행위로서의 연애와 연애 규칙의 파괴

박경리의 『표류도』(1960)[26]는 지적이고 냉소적인 여성 주인공 강현회

25) 박경리의 초기 소설은 전쟁미망인에 관한 서사적 재현에 골몰한다. 사소설적 성격을 지적받기도 하는 초기 단편인 「불신시대」, 「암흑시대」에서는 전쟁미망인인 여성이 아들을 잃는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과 사회의 부조리가 등장한다. 전쟁미망인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와 훼손된 국면을 예리하게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나 혈연중심의 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성중심의 가족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옥, 「'여성적 자존과 소외' 사이에서 글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1996; 정영자, 「1950년대의 한국여성문학사 연구」, 『비평문학』 17호, 2003; 김미영, 「전후 여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주인공의 성의식 연구」, 『우리말글』 30, 2004; 김영애, 「박경리의 『표류도』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vol.34, 2007, 323~334쪽) 이선미 역시 강신재와 박경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가장의 양상을 살핀다. 여성들은 가족을 권위나 의무가 아닌 '관계'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여성문학연구』vol.10, 2003, 88~116쪽)

26) 박경리, 『표류도』, 지식산업사, 1980.

를 통해 새로운 미망인상을 보여준다. 여성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가족을 봉합하는 구심점이 된다는 것은 전후 소설에서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강현회는 어머니로서의 자아보다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모성을 중심으로 여성인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개성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적 구성은 박경리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여러 편의 미망인 서사와 어울려 독특한 성격을 구축한다.

강현회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연인이 죽는 바람에 전쟁미망인이 되어 아이와 함께 남겨진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방 마돈나의 마담이 되지만, 『유혹의 강』의 강귀순과 달리 다방 손님들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인물이다. 소설은 밤에는 번역을 하며 자신의 정신성을 지키려고 하는 강현회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미망인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한다. "친절을 파는" 여성, 즉 육체로서의 여성이 아닌 정신성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는 육체=여성, 정신=남성의 이분법 속에서 남성이기를 지향하는 강현회의 내면을 보여준다. 그런 강현회의 내면에는 이미 죽은 애인이 있다.

> 나는 그를 생각할 적마다 죽음을 연상한다. 그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번번이 죽음의 문제를 연상한다. 그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번번이 죽음의 문제에 부닥친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그런 생각은 내 가슴에 절벽을 준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신병의 징조이며 음악에 눈물 흘린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못 쓸 값싼 감상의 찌꺼기, 그리고 연애를 생각한다는 것은 굴종이다. 통틀어 슬프다는 것은 청승맞고 궁상스럽고-확실히 청승맞고 궁상스럽다. 거대한 차량 밑에 깔려 죽어야 할 생각들이다. (『표류도』, 13쪽)

강현회는 죽은 애인을 자신의 내부로 수용한다. 그녀의 정신은 죽은 남성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을 내부에 체현한 채 '수행doing'[27]하고 있는 강현회에게 남성과의 연애는 거부해야 할

대상이며, 현재의 삶 역시 부정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젠더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젠더는 실천과 수행을 통해 변모하며 남성과 여성 사이를 넘나든다. 공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집안의 가장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남성의 젠더이지만, 다방마담이라는 서비스, 감정노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사적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현회의 젠더는 여성의 영역에 한정되거나 고정되지 않는다. 강현회는 실상 남성적 목소리를 가진 셈이다.

강현회의 남성적 목소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연애의 규칙을 파괴한다. 강현회는 연애의 낭만적 환상을 직시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마돈나의 단골들은 제각기 저마다의 환상 속에서 강현회를 욕망한다. 아내로 표상되는 부르주아적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이상현은 사상의 진보성을 강현회와의 연애 속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젊은 시인인 민우는 강현회를 사랑한다며 행패를 부리고 협잡꾼인 최강사 역시 강현회의 육체에 관심을 보인다. 여기서 여성의 육체는 남성주체들의 환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래 대상이 된다. 최강사가 미국인 스미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강현회를 '판매'하는 것도 여성이 거래되는 현장이다.[28] 이 장면을 통해 소설은 연애에 대한 낭만적 환상이 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연애가 거

---

27) 버틀러는 실존주의자들을 따라, 육체가 용인된 해석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만 하는 장소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현존하는" 육체는 용인된 젠더 규범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통로가 된다. 결국 육체와 육체를 담보로 한 섹스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효과, 결과가 되는 셈이다. Judith Butler, "Sex and gender in Simone de Beauvoir's *Second sex*", *Yale french sutides*, NO.72, 1986.

28) 여기서 등장하는 미국인 스미스는 법정에서 미국 정부의 요원인 것으로 밝혀진다. 법정에서의 그의 증언은 최강사가 강현회를 판매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때 스미스와 최강사의 거래는 양공주나 기지촌 여성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사이의 거래의 축소판이다. 한국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미국의 원조와 우호를 구매하는 것이다.

래 행위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노출한다. 연애는 사라지고 거래만이 남는다. 여성을 둘러싼 교환과 거래는 사회를 지탱하는 메커니즘으로 상정되었다. 여성과 선물의 교환을 통해 친족은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는 국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게일 러빈은 이러한 여성교환을 '거래'라 명명하며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분석한다.[29] 연애가 거래행위라면, 거래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만 한다. 연애를 통해 남성은 타자인 여성을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애 거래의 원칙이 된다.

강현회와의 여행 이후, 그녀를 '소유한' 이상현은 다방을 그만 둘 것을 종용한다.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이들에게 상품으로 내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 한 여자를 완전히 정복한 데서 오는 안심과 만족과 참월이다. 그러나 나는 그처럼 안정될 수도 없고, 자연스러울 수도 없었다. 도리어 그러한 상현씨한테 일종의 반감까지 느꼈다. 어떤 때는 그에 대한 그리움 속에 뻑적지근한 적대의식이 숨어 있는 것을 본다. 육체의 교류라는 것이 여자한테는 굴종을 의미한다. (『표류도』, 115쪽)

하지만 박경리의 여성인물들은 이 거래의 규칙을 위반한다. 이상현의 소유물이 되지 않고 자신을 상품으로 여기는 질서에 저항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학대적 폭력으로 나타난다. 최강사를 죽이고 감옥에 수감되는 강현회는 자신이 최강사에 대해 살기를 느꼈음을 인정하지만 살인은 우발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다방 마담의 섹슈얼리티가 거래되는 데에 대해 살기를 느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성

29) 게일 러빈은 가부장제의 설명틀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섹스/젠더 체계에 바탕을 둔 여성의 거래가 강제적 이성애를 윤리적 명제로 만들고, 사회 제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Gayle Rubin, "The traffic in women", *Feminism and history*, Oxford University, 1996.

의 섹슈얼리티가 거래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남성주체와 거래되는 상품이기를 거부하는 여성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감 이후 강현회는 사학과 출신의 인텔리 여성이 아니라 한 명의 범죄자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낭만적 사랑을 꿈꾸던 순진한 여급에서 성매매 여성, 마약중독자로 '타락'하는 광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30] 강현회와 광희의 타락은 '상품'의 질서 교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을 때, 거래는 불가능해지고 거래가 지탱하고 있던 이성애 중심의 상징질서는 붕괴하기 때문이다.[31]

3.2. 우울증적 미망인 되기에의 욕망

남성작가들의 전후 소설에서 전쟁의 피해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떠안는 어머니나 순결한 여동생의 수난으로 봉합된다. 희생자 이미지를 가진 여성을 통해 신화를 구축하는 것이다.[32] 전쟁미망인이 피해자이자 가족의 붕괴를 지탱하는 희생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박경리가 그리고 있는 남지영은 희생자에서 주체적 인물로 거듭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강현회가 여자 거래의 원칙을 깨트리는 미망인이라면, 『시장과 전장』(1964)[33]의 남지영은 미망인 되기를 고집하는 여성이다. 남편과 아이들로부터 떠나 삼팔선에 인접한 연안에 부임한 남지영은 전쟁 전, 혹은 전

30) 순진한 여급이었던 광희는 시인인 민우를 동경하고 사랑한다.

31) 당대 흥행감독이었던 권영순의 영화 <표류도>는 소설과 달리, 출옥한 강현회가 이혼한 이상현과 섬에서 살다 병으로 죽는 것으로 결말을 처리한다. 이는 연인의 재회와 슬픈 사랑이라는 멜로드라마적 관습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길성, 「표류도에서의 각색의 문제」, 『대중서사연구』 18, 2007, 353~385쪽.
이러한 결말은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뿐 아니라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균열적 섹슈얼리티의 봉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2)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33) 박경리, 『시장과 전장』, 나남, 1993.

시의 정상적 이성애 사회에서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체현한다. 남편이나 가족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 (내가 이곳에서 죽어버린다면?)
> 쓰러진 자기 자신의 시체가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인민군에게 끌려간다면?)
> 시베리아 노동수용소, 그것도 무섭지 않고 아름다울 것 같다.
> (그이는, 어머니는 뉘우치겠지. 오래도록, 심한 뉘우침 속에 살거야.)
> (『시장과 전장』, 177쪽)

남지영은 서울의 가족을 찾아가는 피난길에서 위와 같은 공상에 빠진다. 안정적인 가족이 있는 서울을 떠나 삼팔선 근처 연안으로 옮겨갔을 때, 남지영은 자신을 미혼인 여선생으로 정체화한다. 남편과 아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그녀는 가족을 부정하고 남편 없는 여자가 되려고 한다.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아이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남지영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침잠해 있을 뿐, 가족에 대한 의무나 양육으로부터 자유롭다. 가족 안에서 오히려 소외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죽음이나 고통을 아름답게 느끼는 남지영은 건강하지 못한 주체이다. 미망인이 아닐 때에도 스스로 미망인 되기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런 남지영이 삶에의 의지를 획득하고 건강한 주체가 되는 것은 전쟁 이후, 미망인으로 살아갈 때이다.[34]

---

34) "저녁때가 가까워지자 부스스 일어난 그는 우물가에 나가 세수를 하고 우물 속을 들여다본다. 우물에 비친 얼굴은 거울에 비친 얼굴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에 반한 건 무리가 아냐. 어디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그는 아이처럼 오래오래 우물 안을 들여다 본다." (『시장과 전장』, 258쪽)
남지영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남지영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하지만 전쟁의 발발 이후,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남편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고백한다.

남지영이 가족과의 분리를 원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혐오에서 기인한다.

> “집념에 가득 찬, 굶주린 미소. 나이 먹어갈수록 사람은 음식을 먹는 모습이 추해진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추해진다. 어릴 때, 젊을 때는 저절로 살지만 나이 들수록 발버둥치듯 살아간다. 그래서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추하게 보이는 것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데 지영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시장과 전장』, 129쪽)

남지영은 어머니의 육체를 혐오한다. 동성애를 억압한 남성이 과장된 남성성과 동성애 혐오증을 수행하듯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은 과장된 혐오의 형태로 드러난다.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혐오와 사랑의 감정은 화해를 이룬다. 전쟁의 포화로 인해 죽은 어머니를 애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상실한 대상에 대한 공개적 애도를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남지영의 우울증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자 모성적 몸의 억압에서 기인한다. 여자아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최초의 대상인 어머니에 대해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여자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거세 불안으로 인해 부정된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근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여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랑 대상을 아버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사랑은 근친상간 금기로 인해 부정된다. 즉 여자아이는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선취된 두 가지 부정으로 인해 여성은 어머니에 대한 동성애적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근친상간적 사랑도 거부하는 ‘이중 파동’을 형성한다.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최초의 사랑은 동성애 금기로 인해 거부되고, 아버지로 전환한 사랑은 근친상간의 금기 때문에 거부된다. 하지만 이 거부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에고에 합체되

어 젠더 정체성을 구성한다. 여자아이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금기로서 자신의 내부에 선취하고 있는 것이다.[35] 남지영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랑대상인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부정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지나친 어머니의 애정이 그녀를 가족 밖으로 몰아내기 때문이다.

남지영은 어머니의 사랑을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위치에 놓인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함께 생활하며 딸의 살림살이에까지 일일이 참견한다. 이는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애도할 수 없게 한다. 애도는 불가능해지고, 애도되지 못한 사랑은 남지영의 내부에서 우울증이 된다.[36] 이러한 구도는 박경리의 소설에서 자주 반복된다.[37]

> 그러한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많은 애정을 베풀고자 하고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바라고 적은 것을 거부하는 오만한 내 인생 태도에 비하면 극히 하찮은 욕망이나 안일을 찾는 어머니는 몹시 겸허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어머니를 비굴하고 수선스럽다고 경멸을 했다. 경멸을 하면서도 내 정신 영역의 대부분을 어머니는 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잇몸이 근질근질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표류도』, 41쪽.)

---

35)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36) 주체에게 상실한 애정대상은 무의식적으로 주체 안에 합체된다. 이로 인해 리비도의 철회과정인 애도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상실된 대상의 애도를 거부하는, 즉 거부를 거부하는 이중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프로이트, 「애도와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3.

37) 박경리의 초기 소설에는 어머니에 이어 딸이 미망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한다. 구습에 익숙한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에 제대로 싸워 보지 못한다. 대신 남편에 대한 원망과 사랑을 딸에게 투사한다. 이때 어머니는 딸에게 혐오의 대상이자 애정대상이 된다. 어머니는 여성주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근원이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경멸과 혐오를 숨기지 못한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음에도 재가하지 않고 딸만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를 향해 오히려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표류도』의 강현회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 미망인이 된다. 강현회의 어머니는 남지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딸과 분리되지 못한 채, 함께 살아간다. 강현회는 생계부양자로 공적 영역을, 어머니는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딸들은 자기가 만든 가족이 어머니의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어머니의 과도한 애정이 딸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불감증적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38] 이처럼 박경리 초기 소설에서 미망인의 대물림이라는 특징적 현상은 양가적 어머니-딸 관계를 통해 이성애정상성을 내파한다. 미망인이 된 딸은 공사의 젠더 구분을 교란하며 우울증적 동성애 섹슈얼리티를 체현한다. 사회가 여성성이라고 부르는 감정 노동, 재생산, 정숙함 등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하지만, 실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친절한 다방의 마담이지만 손님들을 철저하게 경멸하는 강현회의 남성적 목소리나 한 가정의 주부이자 선생님이지만 가족과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남지영은 대체

38) 「반딧불」(『불신시대』, 동민문화사, 1963)의 주영은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로 인해 고학생이 된다. 이런 현실적 조건은 부잣집 아들인 연인과의 사이에 장애가 된다. 딸은 자신의 연애가 실패한 것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어머니를 "욕된 존재"로 인식하는 주영은 어머니와 화해한 직후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이는 어머니와의 사랑이라는 금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머니와의 화해에 성공한 주인공은 선취된 금기에 도전한 징벌로 죽는다.

또 다른 단편 「벽지」(『불신시대』, 동민문화사, 1963)의 강혜인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혼자 남는다. 혜인의 고립은 언니의 연인을 사랑했다는 죄책감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언니가 북으로 떠난 뒤 재회한 김병구와 재회한 혜인은 김병구의 애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프랑스로 떠난다. 이는 강혜인의 애정이 처음부터 김병구가 아닌 김병구가 사랑한 대상, 언니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지적이고 명랑한 언니와는 달리, 강혜인은 내면적이고 차분하다. 첩의 자식으로 집에 들어온 강혜인에게 본처의 딸인 언니는 강한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 근친상간과 동성애 금기에 모두 해당되는 이 사랑은 주체의 내부에 유폐되고, 강혜인은 자기 안의 '벽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강혜인과 주영은에게 어머니와 언니는 동일시의 대상인 동시에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양가감정으로 인해 여성주체는 자신을 학대하거나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되지 않은 상실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남지영은 우울증자에서 생활인으로의 변모에 성공한다. 전쟁 중에 남편과 어머니를 상실함으로써 억압된 금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족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남편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만, 그녀는 가족에 속한다. 남편과의 애정 없는 결혼생활은 남편의 부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남지영은 실제로 진정한 미망인이 된 시점에서부터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 쫓아다니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시장에 나서는 남지영은 이전의 우울증적 주체에서 생활력을 가진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이때 그녀의 가족은 가부장과 섹슈얼리티가 부재한 곳이다. 억압과 금기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자신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결국 새롭게 가족을 지탱하는 것은 이성애가 없는 가족인 셈이다.[39]

이성애가 없는 가족 속에서 여성주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주체성을 펼쳐 보일 수 있다. 어머니라는 억압된 대상을 상실한 후, 공개적 애도를 거쳐 남지영은 자신의 가족을 세운다. 전쟁이라는 이니시에이션을 거친 남지영의 성장은 미망인이 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상 가족이 아닌 탈구되고 비이성애적인 가족의 건설을 통해 전쟁미망인은 사회 담론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가 말하는 정상가

39)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 역시 이성애 가족이 탈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문하란과 안수영의 가족은 음악가와 교사의 결합이자 가족이 찬성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가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생명 없는 인형"으로 명명된다. 결혼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 공동체가 아니라 "상반된 인간"이 모인 "질서"가 되는 것이다. 이들의 결합은 "죄악"이자 "허위"로, 근대적 가치관의 핵심을 위반한다. 사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을 건설했지만, 그 가치관의 핵심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인물이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 그 어디에도 행복이나 건강함은 없다는 의문인 것이다.

족의 틀이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잉여 가족과 순수한 소비로서의 미망인 섹슈얼리티

전후 소설에서 육체의 불구성은 인간성의 파괴와 허무주의를 대변하며 소설 속에 등장하였다. 살려는 의욕을 상실한 인물들은 인간의 '맨얼굴'을 드러내며 인간의 실존을 고발한다.[40] 이때 여성의 육체는 시대의 불구를 전시하는 상연장이 되었다. 「비오는 날」의 동옥과 같은 여성인물은 아름다운 외모와 불구인 다리를 통해 시대의 병리성을 육체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불구성이 전쟁미망인 서사로 오면 불모성으로 변모한다. 미망인들의 섹슈얼리티는 가족 밖을 향해 미끄러지고, 가족 안에서도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전쟁미망인들은 건강한 국민을 기르는 어머니가 됨으로써 사회 재건에 보탬이 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건강한 주체로서 국가의 호명을 받기 위해, 여성들은 '부덕'을 가진 여성으로서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은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졌으며,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난 여성의 육체는 부패한 사회상을 상징했다.[41] 소비, 사치, 성적 방종 등 잉여의 기표가 타자인 여성들에게 할당된 것이다. 여자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고, 미국식 옷과 화장품, 영화에 열광하며 댄스홀과 요리집을 전전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이다.

---

40) 손창섭 문학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향은 육체적·정신적 불구성을 통해 전후 한국사회를 재현한다. 김윤식·정호웅, 「한국전쟁의 충격과 새로운 출발의 모색」,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47~382쪽.

41)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92쪽.

『유혹의 강』의 이경혜와 오영환처럼, 성적 방종을 보여주는 미망인들의 섹슈얼리티는 무성적 형태에서만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재생산의 영역을 벗어나는 섹슈얼리티를 재현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내포하고 있는 병리적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숙하라는 사회의 요구를 이중적인 방식으로 교란한다. 가족에 안착한 이경혜는 예전처럼 댄스홀이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대신 정원을 가꾸고 집을 관리하는 '가정의 천사'가 된다. 담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은 세대의 재생산과 양육이라는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에 건강한 국민을 생산해야 한다는 담론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태양의 계곡』의 지희 역시 자기학대적 폐쇄에서 벗어나 가족을 건설한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음으로써, 다시 한 번 가족의 붕괴를 목도한다. 전쟁미망인들에게 건강한 가족이 허락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혹의 강』이나 『태양의 계곡』은 전쟁미망인들의 섹슈얼리티가 실상 사회 재생산의 기틀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미망인들은 자기학대적 방종이나 처벌을 일삼는다. 전쟁미망인의 가족 속에서 연애는 미끄러지고 가족은 불완전해진다. 연애는 가족 밖에서 무성애적 형태로만 유지되며, 재생산은 불가능해진다. 성적 방종은 자기처벌의 일환이 되고, 낭만적 연애는 무성적 관계에서만 유지되는 것이다. 무성적 섹슈얼리티를 체현하는 전쟁미망인들은 사회 담론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며 '건강한'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연애는 가족 밖으로 미끄러지고 이들이 만들어낸 가족은 재생산을 부정한다. 결국 이들은 근대적 핵가족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박경리의 소설은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가 이성애정상성을 내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방종과 정숙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전후 사회의 특징이다. 거래 행위로서의 연애를 바탕으로 한 이성애 정상성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상품성을 제거한다. 『표류도』의 강현회는 죽은 애인을 자신 안에 합체한 채, 젠더 경계를 허문다. 그녀는 가장 여성적인 '다방 마담'인 동시에 가장 남성적인 '지식인'이다. 이때 강현회가 고집하는 자신의 정신성은 남성성, 즉 상실할 수 없는 상실을 의미한다. '정상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이 이중의 상실은 여성성의 가면을 통해 극복된다. 여성은 여성성을 활용해서 동성-성애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되는 상품이 됨으로써 정상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현회는 상품인 자기 자신을 훼손함으로써, 남성의 목소리를 획득함으로써 거래의 규칙을 무너뜨린다. 이러한 규칙의 파괴는 연인이나 아내가 아닌 미망인 되기를 고집하는 『시장과 전장』의 남지영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지영은 전쟁을 통해 어머니, 남편과 분리됨으로써 주체성을 획득한다. 그녀는 가족의 안과 밖을 교란한다. 그녀가 가족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강한 동일시와 욕망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머니를 욕망하기에 동일시할 수 없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자란 미망인의 딸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닮고 싶지 않지만, 절대적 애정의 대상으로 어머니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딸과 어머니 사이의 양가감정은 딸들의 성공적 연애를 방해하고 딸들을 우울증자로 만든다.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등장하는 전쟁미망인들의 섹슈얼리티 역시 사회가 구성한 담론에 따라 방종/순종의 이분법적 사다리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텍스트의 이면에는 이분법을 해체하는 서사가 존재한다. 타자화된 여성성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타자가 안전하게 만든 주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주체가 형성되는 근본토대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질서를 내파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적 욕망을 가진

전쟁미망인이나 우울증적 어머니는 사회의 생산담론에 배치되는 소비의 자장에 해당한다. 이들은 생산담론에 히스테리를 보이며 순수한 소비의 영역을 지향한다.[42] 생산과 소비의 축에서 여성의 재생산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생산으로서 기능한다. 재생산 없이는 사회의 존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쟁미망인들은 성관계를 통해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철저한 비-생산으로서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를 사회는 히스테리라 명명한다. 하지만 이 히스테리아들은 섹슈얼리티의 소비를 통해 생산 위주의 근대화를 시도하던 50년대 한국사회와 대립하며 사회 담론을 교란한다. 생산과 건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사회에 근본적 층위에서 시작되는 섹슈얼리티의 소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히스테리가 갖는 힘이자 가능성이다.

42) 바타이유는 순수한 소비만이 문명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인류의 문명은 생산의 과잉을 진보로 인식하고, 과잉생산을 일삼는다. 바타이유에 따르면, 과잉생산은 균형을 파괴하고,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행위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쟁이다. 전쟁이 물리적 파괴라면 문학, 그중 특히 시는 비극적 파멸의 상징적 형상화를 통해 고뇌와 공포를 자극하는 소모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지점이다. 목적과 유용성을 벗어난 순수한 소비의 영역에 문학이 놓이는 것이다. 바타이유, 『저주의 몫』, 조한경 옮김, 문학동네, 2007.

ㅁ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경리, 『표류도』, 지식산업사, 1980.
_____, 『시장과 전장』, 나남, 1993.
_____, 『불신시대』, 동민문화사, 1963.
_____, 『성녀와 마녀』, 지식산업사, 1980.
정비석, 『유혹의 강』 上, 下, 신흥출판사, 1958.
손소희, 『태양의 계곡-손소희 문학전집4』, 나남, 1990.
한무숙, 『감정이 있는 심연』, 현대문학사, 1960.

2. 단행본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94쪽.
_____,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낸시 초도로우, 『모성의 재생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사라 살리,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김정경 옮김, 앨피, 2007.
바타이유, 『저주의 몫』, 조한경 옮김, 문학동네, 2007.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히스테리』, 엄양선 외 옮김, 여이연, 2003.
탈콧 파슨스, 『현대사회들의 체계』, 윤원근 옮김, 새물결, 1999.
Renata Salecle, *On anxiety*, Routledge, 2004.

3. 논문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35집, 2008, 101~147쪽.
김윤식・정호웅, 「한국전쟁의 충격과 새로운 출발의 모색」,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47~382쪽.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 론의 특징」,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19, 2007, 137~151쪽.

김해옥, 「'여성적 자존과 소외' 사이에서 글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vol.6, 1996, 222~251쪽.

서지영, 「카페, 근대 유흥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14, 2005, 65~88쪽.

이길성, 「표류도에서의 각색의 문제」, 『대중서사연구』 18, 2007, 353~385쪽.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여성문학연구』 vol.10, 2003, 88~116쪽.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호, 2000, 9~55쪽.

임은희,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여원>에 나타난 간통의 담론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2007, 131~160쪽.

정영자, 「1950년대의 한국여성문학사 연구」, 『비평문학』 17호, 2003, 294~351쪽.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걸」,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 119~153쪽.

Gayle Rubin, "The traffic in women", *Feminism and history*, Oxford University, 1996, pp.105~151.

Judith Butler, "Sex and gender in Simone de Beauvoir's Second sex", *Yale french sutides*, No.72, 1986, pp.35~49.

Judith Modell and John Hinshaw, "Male work and mill work", *Gender and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33~159.

Abstract

Korean War and the Appropriation of Hysteria

—focused on the sexuality of war-widow and post-war family structure

Heo, Yoon

After the Korean War, war-widows couldn't have a normal family as the country asked them. Korean society controled their sexuality and claimed that they could be beautiful when they were raising their sons without remarriage. Unlike the social request, however, the families of the war-widows in literature threatened the foundation of social reproduction system. In 『The Temptation River』 and 『The Valley of the Sun』, war-widows lived their lives masochistically. Sexual pleasure is a way of self-punishment and romances are in the boundary of asexual relationships. Asexual relationships matters because they make the social reproduction impossible. Pak Gyungli's earliest novels show that the sexuality of war-widows destruct the hetero-normativity. They break the gender boundary and upset the family structure.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makes the daughters melancholias and intimidates the society.

Key words : war-widow, the late 1950's, reproduction, survivor's guilty, hetero-normativity, hysteria, Pak Gyungli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